

Y 특별 대담

제7회 이연배 봉사상
수상자 권도웅 고문

Y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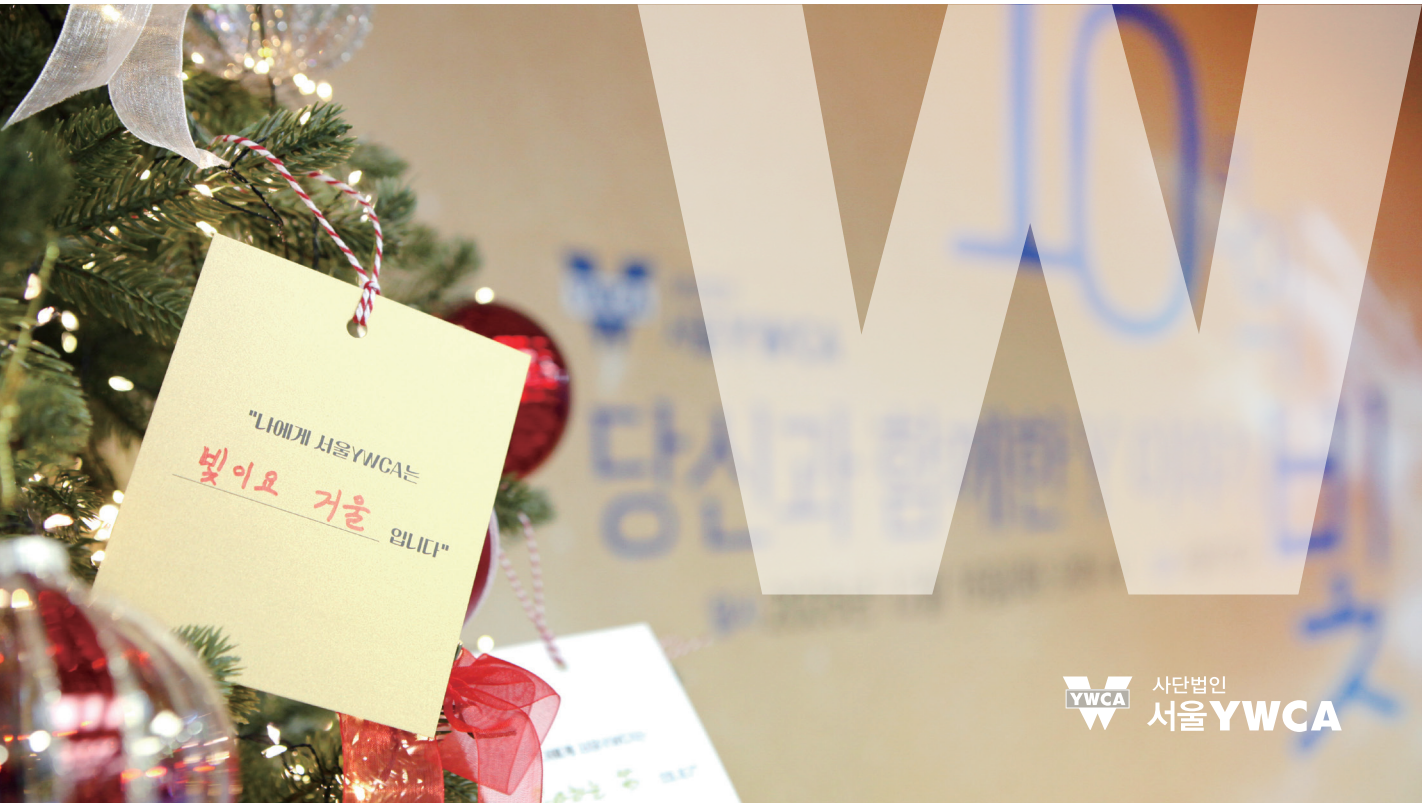
기독교시민아카데미

미술로 읽는 성경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희생

현장 속으로

노년 여성의 돌봄, 그 무게를 말하다



연말이 다가오면 의식을 치르듯 한 해 동안 만든 책을 책상 한곳에 모아두고,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번 연말에도 어김없이, 만류새가 제각기인 책들을 탐처럼 쌓아 두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예년과 달리 적지 않은 변화가 사진에서 엿보였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동서고금의 철학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출판계로 뛰어들었는데, 막상 몇 권의 철학책을 만들고 보니 철학책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됐다. 천편일률적으로 위계적인 저자들의 소통 방식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현실과 유리된 텍스트를 다루고 있다는 감각이 초심에 파장을 입혔다. 남성 작가가 쓴 철학서로 공고히 채워져 가던 출간 목록을 보고 있으면, 원하던 책을 만들고 있음에도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는 내가 만들어 갈 책에 서서히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잡고 야심을 가득 담아 만든 첫 책은 「변신」이었다. 세계적인 이중 언어 작가 다와다 요코의 강의록이다. 다와다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느끼는 이질성을 포착하고 세밀하게 해부하며, 탈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변신」은 이질성을 거부하고 인간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이 사회에 던지는 날카로운 물음과 비판을 담은 책이다. 두 번째 책은 세계적인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여성을 억압하는 세계」다. 누스바움은 인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두 여성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가정, 사회, 종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그린다. 마지막 책은 사회학자 홍찬숙의 「젠더 갈라치기 정치」다.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한국 사회의 성차별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세 권은 모두 첫 번째 독자이자 편집자로서 인상 깊게 읽고 배움을 얻은 책이다. 출근하면 이 원고들을 읽고 다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 빠르게 불을 지폈다.

새로운 해에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다. 납작하지 않은 책을, 뾰족하고 입체적인 분석과 주장이 담긴 책을. 적어도 그런 책들이 사회를 바꾸는 운동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에 선보일 책으로 차별과 혐오의 원인을 분석하는 에세이, 젠더 논쟁에 관한 강의록을 준비하고 있다. 평소 읽는 책과 결이 비슷한 책들이다. 사회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책, 사회 문제에서 시작하는 책을 읽고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아 보려 한다.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일

“살아가는 일에서 그러하듯이 책을 만들면서도 걸핏하면 헤매고 길을 잃는다. 가능할 수 없는 인생처럼 이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결국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읽은 책들과 앞으로 읽어갈 책들이다. 그 책들이야말로 편집자인 내게 변함없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편집자로서 나는 언제나 그 책들 사이에 있다.”

— 오경철 「편집 후기」 중에서

서울YWCA

2026년 1·2월호 640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월 공동기도

새벽의 빛이신 하나님, 새해의 첫 숨결 속에서 창조의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안의 닫힌 문들을 열고,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2월 공동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분열, 혐오와 냉소의 언어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화해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울음이 그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웃을 품으며 평화의 길을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되게 하소서. 아멘

-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 4 **새해의 말씀**
새로운 상상, 새로운 저항
- 6 **Y 이슈**
2025 기독교민아카데미
- 8 **현장 속으로**
다이내믹 청년 공론장
돌봄 세미나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14 **Y 특별 대담**
제7회 이연배 봉사상 수상자 권도웅 고문
- 16 **미술로 읽는 성경**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희생
- 18 **서울Y 소식**
2025 11·12월 뉴스
2026 1·2월 행사 안내
2026 1·2월 캘린더
- 24 **후원 소식**
- 27 **알림터**
- 29 **정기총회**
정기총회 안내·순서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이동숙, 서울Y 7대 사무총장·해외선교사

「서울YWCA」 2026년 1·2월호 통권 제640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6년 1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볼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위원 이재숙 조희수 최혜란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현숙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이희도 인문 교양서 출판편집자. 읽고 싶은 글을 매만지고 물성을 아름답게 입혀 세상에 내놓는 일을 합니다. 약자, 소수자, 돌봄, 전쟁,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긴실繫實한 텍스트를 매일 찾아 읽고 씁니다. @trauer_h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새로운 상상, 새로운 저항



채송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새로운 상상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편 1절)

새해에 누군가를 축복하며 성경 한 구절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 시편 23편의 이 말씀만큼 좋은 구절도 없을 거다. “2026년 새해에는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하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망을 담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존재들을 축복해 보자. 이 시편은 자기 자신이 전직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다가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는 방식이 목자였던 자신이 양을 돌보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도 하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며,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종종 등장한다. ‘목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아닌’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아람으로 간다.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들에서 목자들에게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고 목자들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는다. “그(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창세기 29장 6절) 그렇다. 라헬은 목자였다. 라헬이 살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양을 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라헬도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풀밭에서 쉬게 하던 ‘목자’였다. 들을 쏘다니며 바지런히 양을 돌보고 양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여성 목자 라헬을 떠올리며 다시 말씀을 읽어 보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라헬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롭기는 해도 낯설지는 않다. 서울YWCA의 회원들도 이제껏 라헬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들판에서 바지런히 우리의 양을 각자의 방식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왔을 테니까.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다.”

서울YWCA가 새해에는 그저 가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고 함께 다정하고도 새로운 저항을 용감하게 시도하기를

새로운 저항

2025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그랑프리)을 수상한 영화 <센티멘탈 벨류>를 제작한 노르웨이의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다(Tenderness is the new punk).” 이 말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어에서 펑크(punk)라는 단어는 원래 반권위적·반주류적·도발적 태도를 뜻하는 말이다. 트리에 감독은 이제는 공격적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반항보다 다정함·연민·취약성을 드러내는 태도가 더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의 방식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다정함을 무장 해제 상태로 드러내는 게 기존의 규범을 흔들 수 있고 그 자체가 저항이 된다는 역설적 발언이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와 헌정 위기, 이어지는 기소와 사회적 분열로 진한 내홍을 앓았다. 이와 더불어 정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도 깊어져만 가고 있다. 국제 정세도 날이 갈수록 군사·안보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다. 저성장, 불안 속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긴축, 경쟁, 효율성 강조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 해결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축소시키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쉽다.

어쨌든 새해는 또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한해를 살아내야 한다. 2026년은 2025년과 같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놓치지 않은 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상이 아닐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년 다윗이 아니라 소녀 라헬과 연결해 상상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도 새로운 상상을 했고 그의 상상은 많은 이들을 새로운 저항의 길로 초청한다.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다.” 서울YWCA가 새해에는 그저 가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고 함께 다정하고도 새로운 저항을 용감하게 시도하기를. 들판에서 자유롭게 양을 치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쟁취할 줄 알던 성경의 목자 라헬처럼. ♪

디지털 시대, 정의와 공존을 위한 물음과 답 2025 기독교시민아카데미

2022년부터 매해 열고 있는 서울Y 기독교시민아카데미 올해는 '디지털 시대, 정의와 공존을 위한 물음과 답'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불평등·폭력·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책임있는 기독교민의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월 3일과 4일, 총 3강에 걸쳐 회관 마루에서 현장 강의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2025 기독교시민아카데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질의응답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강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기독교민의 사회적 책임 홍종호 교수_ 서울대 환경대학원,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저자



근대적 의미의 경제성장은 근 200년 동안 일어났다. 19세기 초 석탄의 대량 사용과 20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전기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배출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누적된 탄소배출량은 280-430ppm에 이르렀고, 550ppm을 돌파하는 순간 이전의 지구로 돌아올 길은 없다. 기후불평등은 국가·소득·지역·세대, 네 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다. 기후위기 피해국가 TOP 10에는 최다 탄소배출국이 없다. 상위 소득 10%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체의 50%에 이른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역별 전력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8.9%, 충남은 214.5%인데도,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두 가지가 존재

한다.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전환 리스크를 무시하면 물리적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은 기후 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결국 기후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정치, 기업, 언론, 공무원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2020년대 탈탄소 무역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는 분위기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기업경쟁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금융경쟁력,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산업경쟁력이 직접 연결된다. 기후와 탈탄소를 매개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증거이다. 재생 에너지 발전이 시급한데, 지금 우리의 발전량은 압도적으로 저조하다. 반면에 국토면적당 가동 원전설비 용량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린과 디지털, 쌍동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시장 정상화, 에너지전환 가속화, 탈탄소 산업구조 확립,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과 디지털 복합전환 실현, 정의로운 전환 실현)가 빠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2강 불평등 시대, 존엄을 향한 노동 : 기독교민의 응답 이철승 교수_서강대 사회학과, 「불평등의 시대」 저자



쌀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연공 중심의 위계 문화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성장 시대, 임금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의 결과로 연공 급여에 대한 기울기가 커지게 된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에는 두 배로 오르게 된다. 그로 인해 기업은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외주를 확대하며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급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의 하청 구조도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숙련 없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 매뉴얼 사회가 조성되지 못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이슈인데, 어려움이 많다.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교섭을

3강 기술매개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기독교민 김애라 연구위원_한국여성정책연구원,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저자



휴대폰에 카메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장소 불법 촬영 이슈, 딥페이크, SNS 메시지 성희롱 등 디지털 기반 젠더 문제는 끝이 없다. 기술매개성폭력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형사, 민사적 그 외 유해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말한다. 최근 일어나는 성폭력에 새로운 기술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디지털 성폭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2004년, 가상현실게임 'QuiVR' 공간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유저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당한 느낌이 었다. 리얼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매개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실과 가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매개성폭력은 사회 관계와 일상을 파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성폭력이 음란성, 성적욕망, 수치심에 기대어

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이 쉽지 않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고 개별화 되어 있어 노조 결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연공제는 젠더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연공제는 오래 남아있는 것이 핵심인데, 여성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흘러 50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꿀까? 먼저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 주는가는 더 지켜봐야 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동된 기업 간, 개인 간 불평등에 있어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시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진다면 그 효과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럼 더 큰 편차가 벌어지며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연공편향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새로운 직종과 직업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할 사회일지도 모른다. 직장과 직장을, 직종과 직종을 건너뛰 때 그 후지기를 이어주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연안정화' 모드를 갖춘 새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매개성폭력의 '진짜' 속성을 보기 어렵게 한다. 불법 촬영물이 증거인가, 음란물인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 개념에 함몰되어 있으면, 기술매개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성폭력의 측면과 일상적 통제, 괴롭힘의 측면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신체적 피해 중심 처벌 구조이다 보니 기술매개성폭력을 온·오프라인 구분에 따른 단순 불법행위로 바라보는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불안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임을 알게 되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다녀 해결해야 하고, 촬영물과 개인인상 유포 등의 협박으로 고소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유포 되면 완전 폐기는 사실상 어려워 평생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사는 사례도 발생한다. 점점 다양해지는 기술매개성폭력에 대응하려면 공동체 내에서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며 교육과 입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술매개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디지털 기술에 따른 윤리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다이나믹 청년 공론장

서울Y는 지난 11월 1일, 대학·청년YWCA 임원협의회가 기획·진행한 '다이나믹 청년 공론장'을 회관 마루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청년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127명의 사전 설문을 통해 청년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세대 불균형, 저출생·고령화, 청년 일자리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청년의 목소리, 의제가 된다'를 주제로 특별강연하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오마이뉴스 사회부) 특별강연 '청년의 목소리, 의제가 된다'로 공론장의 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와 언론이 만들어낸 고정적 '청년' 이미지 뒤에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현실의 청년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청년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 시절 겪는 일시적 불안'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제시했다. 박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

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짧은 기간이라도 프로젝트 활동을 시도해보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중요한 정치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청년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어진 청년 발제에서는 시대 과제를 청년의 시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오건우 청년(소리모아 대표)은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세대불균형을 주제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관점에서 기존 정책과 최근 개혁안의 쟁점을 짚었다. 이운성 청년(쌍크머니 회장)은 저출생·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 지역·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설명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전환과 생애 과정 전반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수민 청년(그린Y 회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경제 저성장, 기술혁신으로 인한 인력 대체,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 비정규직·인턴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조건-청결한 화장실, 연봉 2,823만 원 이상, 주 3.14회 이내의 추가근무(대학내일 조사)-을 제시하며 '눈이 높아 취업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반박하고, 공정한 기회와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별 그룹 워크숍도 펼쳐졌다. 발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며 논의를 확장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혁 방향, 경쟁 구조와 노동 강도로 인한 돌봄 부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간극,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마다 활발하게 오갔다. 각 조는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청년의 시선에서 정책과 사회변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모색했다.

이번 공론장은 청년이 사회문제의 '대상'을 넘어 의제를 제시하고 해결을 고민하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회문제들을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이들과 의견을 나누며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청년이 사회적 과제를 스스로 해석하고 미래 변화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청년의 시선에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질적 흐름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Y

정리 문신환 청소년운동팀 간사



① 그룹워크숍에서 '청년 일자리'를 이슈로 토의하고 있는 청년 참가자들 ② 공론장 진행을 맡은 대학·청년YWCA협의회 진선윤 회장 ③ 주제별 그룹 토의 내용을 발표하는 소리모아 권재민 청년

돌봄 세미나 노년 여성의 돌봄, 그 무게를 말하다

여성은 오랫동안 가족 돌봄의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자녀 돌봄과 배우자 돌봄, 부모 돌봄을 거쳐 손주 돌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삶에는 돌봄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이 노동은 그간 좀처럼 드러나지 못했다.
서울Y는 노년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의 현실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돌봄 세미나를 12월 22일 개최했다.



주 제 강 연

누가 돌보는가 노년 여성의 돌봄 위기와 사회적 전환의 필연성

김영옥 전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돌봄과 인권」 저자

돌봄을 '선의'나 '헌신'의 영역이 아닌,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노동'이자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젠더화된 책임, 돌봄 공백과 위기, 노인·장애인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정책 언어로 논의되어왔지만, 정작 돌봄의 비용이 누구의 삶에서 지불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짚어내지 못했다. 돌봄의 비용은 통계가 아니라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되며, 특히 노년 여성들이 가족 돌봄의 '보이지 않는 원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돌봄은 특정 관계 안에 가둘 수 없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돌봄을 가족 윤리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돌봄은 타인에게 이전 가능한 노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당사자적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돌봄을 바라보아야 한다.

돌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로,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 몸, 자아, 환경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이제는 '시장 민주주의'를 넘어 돌봄 민주주의로(트론토 Joan C. Tronto, 「돌봄 민주주의」) 나아가야 한다.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완벽한 전환이 필연적이다. 그러기 위해 돌봄 받을 용기와 돌봄 받는 시민적 덕성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을
핵심적인 '노동'이자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박미자
서울돌봄과살림센터 간병사

돌봄 사례 1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지시자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돌보기 시작했다. 직업으로서의 돌봄과 가족 돌봄은 달랐다. 가족 돌봄은 감정과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이 따라왔다. 돌봄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여성', '큰딸'에게 집중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계, 경제활동을 하나씩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돌봄이 끝난 이후에도 회복은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돌봄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성의 일이 되고, 그 부담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더 이상 개인이 혼자 참고 버티는 돌봄이 아닌, 조금은 나누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돌봄 사례 2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육아를 맡게 됐다. 그래도 나는 남편과 함께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나, 혼자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의 경우는 더 어려움이 많다. 황혼육아커뮤니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보람도 있고, 손주가 주는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황혼육아공동체가 정보 교류는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독일에 '마더센터'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육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돌봄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바라보고 황혼육아 돌봄 수당 지원 확대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권송자
황혼육아 할머니
전 유엔여성시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가가 말하는 돌봄 정책과 현장의 간극도 지적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가 돌봄(AIP),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 언어는 필요하지만, 공적 책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돌봄은 다시 가족에게, 그리고 여성에게 돌아온다. 돌봄을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돌봄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돌봄 세미나는 노년 여성의 돌봄을 개인의 미담이나 가족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시 묻는 자리였다. 돌봄은 누구나 언젠가 필요로 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며,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돌봄사회의 출발점이다. 서울Y는 앞으로도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Y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울Y는 12월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디지털 콘텐츠가 재미있어 보여도 성차별·외모 비하·혐오 등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메시지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이번 아카데미는 양육자로서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좋은 미디어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1회차

“우리 아이 첫 미디어, 어떻게 골라줄까?”

애니메이션·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유지은 딱따구리 대표

영유아·초등 저학년 시기 아이들이 접하는 애니메이션과 그림책이 성별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시기의 미디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래동화, 그림책, 애니메이션 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별 고정관념 사례를 살펴보자. 전래동화에서는 폭력과 범죄가 미화되거나 여성 캐릭터가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그림책에서는 돌봄과 요리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는 설정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예뻐지는 것'이 여성의 힘으로 표현되는 변신 서사 등 익숙하지만 문제적인 장면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의도적인 차별이라기보다,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한 성별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적인 미디어를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보고 질문하며 다시 읽는 과정에 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열린 존재이며,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함께 짚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2회차

“숏폼과 유튜브가 가르치는 성차별,
아이와 함께 성평등하게 읽기”

이해우 하하호호 양성평등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숏폼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일상적인 미디어 환경이 된 현실에서 '보지 말라'는 식의 단순한 차단이나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충동 조절이 어려워 자극적인 콘텐츠나 성차별적 표현, 성적 대상화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대화와 공동의 규칙을 제안한다. 양육자가 아이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해하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접했을 때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감정을 충분히 나누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 콘텐츠 역시 관계·존중·경계의 관점에서 성평등하게 해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숏폼 시청 개수 제한, 알람을 활용한 종료 신호, 가족이 함께 기기를 내려놓는 '디지털 쉼 시간', 아이와 협의해 미디어 이용 규칙 등을 만들어 일상에서 실천해 보자. 무엇보다 시민으로서 성평등한 미디어를 읽고 판단하는 힘을 일상 속에서 키워가야 한다. Y 정리_이기쁨 여성운동팀 간사



최초의¹⁾ 피부과 관리²⁾ 비교

1) 자사 최초 2) 건강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 3) 보습에 의한 피부 물광 부스팅 효과를 의미함



XMD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검증된
물광플러밍³⁾



NEW 아이오페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제7회 이연배 봉사상 수상자
권도웅 고문

아버지를 따라 봉사의 삶을 이어갑니다

“함께 봉사하는 건축위원들을 대표해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감을 묻자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의 서울Y 회관이 세워질 당시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순간마다 회관을 살피고 돌보며

서울Y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권도웅 건축사(전 정림건축 사장).

2001년부터는 스무해가 넘도록

건축고문으로 헌신하고 있는 권 고문의 Y 사랑 이야기와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에 대해 들어봤다.

10년 근속상(2011), 20년 근속상(2021)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이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고 기쁜 일입니다. 봉사상은, 우등상이나 개인 경기 우승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고 영광입니다만, 그동안 함께 봉사한 건축위원들과 공동 수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사회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사했다고 널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열심히, 조용하게 봉사와 기부를 병행해나가려고 합니다.

서울Y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요.

돌이켜보면 31년 전인 1994년, 수차례 보수공사에도 해결되지 않는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의 누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당시 정림건축 부사장이었던 제게 고 김정철 회장님(고 이정호 역대 이사 배우자)께서 부탁하셔서 가게된 것이었죠. 뒤이어 같은 해 이미 철거된 지 오래된 서울Y 강당 바닥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인근 신영증권 사옥 신축공사가 원인이라는 판단을 했고 당시 건설회사였던 풍림산업과 협의를 통해 말끔하게 보수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활동가가 많은 서울Y는 건축 관련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텐데, 내가 담당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고문으로 위촉되어 건축자문회의 신설, 자문위원 위촉을 주도하며 건축,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국내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나 건축물은 나이가 들수록 늙게 마련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

처럼 건물도 전문가의 사전 검진과 그에 따른 처방 관리가 필수입니다. 박종남, 김인규, 김상진, 문홍국 위원님은 국내 최고의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해결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보다 이들이 진정한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들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를 지속하시는 힘은 무엇인지,
또 Y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계속 활동을 이어가시는지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1934년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와 1939년 일본 동경농업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내로라하는 직장에서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농촌 개발과 소득증대에 꿈을 두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셨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 산업훈장이 생긴 첫 해인 1963년, 금탑산업훈장 제3호(농업부문)를 수상하기도 하셨지요. 철없던 중고교시절에는 가정보다 농촌만을 위하시는 것 같아 이해는커녕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삶이 값진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5남매 중에 제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요.

아버지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당신의 삶을 즐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사는 하는 이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기에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고 고통만 따르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봉사와 나눔이 행복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봉사'라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으며,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조연신 회장(왼쪽)과 최봄 사무총장(오른쪽)과 함께

회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시민에게,
또는 서울Y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는지요.

회관은 회원과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과 같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필수입니다. 회관은 몇몇 사람에 의해 유지관리 될 수 없습니다. 회원 모두가 힘을 모을 때 회관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관의 병력(건물 보수 내용과 시기)을 잘 아는 인력을 키우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올해 개인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목표와 바람을 나눠주세요.

번듯보다 반듯하게 한결갈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은 오늘같이, 새해도 전년과 같은 삶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위해 건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Y

이연배봉사상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YWCA 목적에 따라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YWCA 리더십의 모범이 되는 자원지도자와 회원에게 시상한다. 이연배 증경회장이 최초 1억원을 출연하여 2015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희생

아브라함은 히브리인과 아랍인, 에돔인의 공통된 조상으로,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개명을 받게 되고 아내 사래 역시 사라라는 이름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

그 이후부터 그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기억된다. 아브람이 86세 때 아내 사래(사라로 개명되기 전)의 하녀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선조이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로부터 얻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히브리인들의 계보에 속한다. 또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 그루라를 후처로 맞이하여 여섯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에서는 에돔족의 선조가 된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그리스도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는 순간 천사의 제지를 받는 극적인 순간은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는 바로크시대의 거장들로 「이삭의 희생」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 있다. 두 사람 다 명암대비 효과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나 그 표현방식은 다르다. 카라바조는 빛과 그림자의 극단적 대비가 드러나는 ‘테네브리즘’에 뛰어나며, 렘브란트는 어둠 속에 빛이나 명암대비 효과를 3차원적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는 ‘키아로스쿠로’를 능숙하게 사용한 화가이다.

카라바조 vs 렘브란트

먼저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며 오른쪽 끝에 있는 양을 가리키는 극적인 장면이다. 아브라함의 주름진 얼굴은 감정을 억제한 굳은 표정으로 결단의 순간을 보인다. 이삭의 얼굴은 칼끝을 쳐다보며 공

포로 일그러져 있다. 천사와 이삭에 같은 모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천사는 전통적 방식에서 보여주던 이미지와 달리 인간의 현실적 육체를 하고 있다. 원경은 어두운 지중해 언덕의 풍경이 밝은 하늘로 인해 공간의 깊이감을 보여준다.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과 현실적 묘사로 종교 이야기의 감정적 힘을 극대화하는 화풍을 통해 이후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은 카라바조의 그림에 비해 전체적으로 갈색조의 어둠과 황금빛 빛의 조화를 보여주면서 온화한 분위기이다. 무릎을 꿇고 있는 아브라함이 같은 들었으나 아직 이삭 가까이로 들이대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의 제지로 칼을 떨어뜨리는 순간의 묘사이다. 아브라함은 번제단의 장작더미에 손을 뒤로 묶인 채 누

운 이삭의 얼굴을 왼손으로 뒤로 제껴 누르고 있고 그의 오른손은 아직 허공에 있다. 아브라함의 얼굴은 순종을 하지만 이삭을 죽여야 하는 고통과 망설임의 갈등, 천사의 나타남으로 놀람 등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삭은 공포가 아니라 체념하고 순종하는 신앙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이삭이 현실적 어린이의 모습이라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삭은 믿음의 동참자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인 어두운 적갈색조와 깊은 황갈색의 명암대비는 그림 전체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낸다. 두 화가 모두 유화로 「이삭의 희생」을 그렸지만 카라바조는 극적인 장면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의 구도를 택했고, 렘브란트는 상황의 전체적 조망과 함께 감정 중심의 인물화로 표현했다는 차이가 있다. ♪



카라바조 「이삭의 희생」, 1603-1604년 경.
캔버스에 유채, 104x135cm.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렘브란트 「이삭의 희생」, 1635.
캔버스에 유채, 193x132cm.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 나눔-이음 네트워크’ 위촉

서울Y는 12월 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제1회 서울 나눔-이음 기념식에서 ‘서울 나눔-이음 네트워크’로 위촉됐다. 서울 나눔-이음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다양한 기부 분야에서 민간 협력 기반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 기여도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40개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작은 나눔의 온정이 서로에게 이어질 때, 온기 가득한 서울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창단식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각 기관의 대표들은 앞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와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창립 103주년 창립기념예배·성탄모임

서울Y는 12월 9일 창립 103주년 기념예배와 성탄모임을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사·위원·실무자 약 140명이 참석했다.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1-6절, 19-23절을 가지고 ‘요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가 전했다.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감옥에도 갇힌 요셉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천 목사는 요셉의 고통과 형통 사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요셉의 성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음은 곧 태도입니다.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서도록 돕는 복덩어리, 곧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념예배 이후에는 ‘찬양사역자 장한이와 함께하는 찬양집회’가 이어졌다. 대표곡 ‘행복’으로 잘 알려진 장 찬양사역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잔잔하지만 힘 있게 증거하며, 청아하고도 파워 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영등포

취업성공사례 공유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9일 ‘2025 취업성공사례 공유회 및 취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8명의 여성의 성공 사례를 듣고 응원과 지지를 나눴다. 교육 참여 동기, 취업 준비 과정, 직장 적응 경험 등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 공유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



누리봄

누리봄가족 사진 이야기

누리봄은 11월 14일과 15일 2025 누리봄 가족사진 전시회를 관악구청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치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누리봄가족이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많은 이가 방문해 격려와 응원을 나눴다. 무엇보다 사진전을 계기로 누리봄가족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정서적 치유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노원

서울북부연합 잡매칭데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26일 서울북부권역 3개 센터(노원·도봉·중랑)와 함께 ‘서울북부연합 잡매칭데이’를 진행했다. 일자리를 찾는 여성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는 선별된 유능한 여성 인재를 추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매칭 성과를 거뒀다. 또한 취업 특강, 체험 부스,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에게 폭넓은 정보와 경험을 제공했다.



봉천

‘별이 빛나는 밤에’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0일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 송년 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강당에서 열었다. 2025년 사업보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한 후, 우수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후원자를 시상하며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끝으로 따뜻한 만찬을 나누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강남

‘톡(Talk)톡(Talk) 마음플장’

강남청소년센터는 11월 8일 ‘마음건강’을 주제로 2025 청소년오피니언리더대회를 열었다. 본 대회는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정서 회복과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57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토론과 아이디어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 마음건강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 문제 해결 아이디어, 지역 사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관점을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회원감사행사

10년의 빛, 당신과 함께한 Y이야기

“나에게 서울YWCA는 빛이요 거울입니다”

“사람이 모여 빛이 되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서울Y는 12월 16일 회원감사행사 ‘10년의 빛, 당신과 함께한 Y이야기’를 대강당과 다목적실에서 열었다. 월후원 10년 이상 지속회원, 신규평생회원(2019년 이후 가입)과 함께한 10년의 여정을 기억하며, 그 길의 빛이 되어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사행사는 양진화 회원모금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연신 회장의 환영사, 최한나 부회장의 여는 기도에 이어 ‘회원과 함께한 서울Y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베이스 박기현의 축하무대도 꾸며졌다. 현재 독일 할레 오페라하우스에서 23년째 전속 종신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박기현 성악가는 질고 웅장한 목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오페라 <세르비아의 이발사>와 <카르멘> 대표 아리아를 부르며 현장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성탄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리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서울Y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 만찬을 나누며 회원감사행사는 따스하게 마무리됐다. “우리는 서울Y의 빛이다”라고 함께 외치며 앞으로도 서울Y와 동행할 것을 약속한 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



신년예배

2026년을 열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일시 2026년 1월 2일(금) 10:30
- 말씀 장윤재 목사(서울Y 고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 장소 대강당
- 문의 02-3705-6001

스포츠센터 강습 안내

발레핏

발레핏은 발레바를 이용한 발레와 필라테스 동작을 바탕으로 골반과 허리, 어깨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바디라인을 되찾아주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1회 (총 3타임 운영) : 70,000원
금 17:30-18:20
금 18:30-19:20
금 19:30-20:20
- 문의 02-3705-6030

신규 프로그램 안내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논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기초	1월 5일(월)-2월 4일(수) (월·수·금) 10:00-13:00
수채화 캘리그라피	2월 5일(목)-3월 26일(목) (목) 19:00-21:30

영등포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취득	1월 12일(월)-4월 7일(화) (월-금) 14:00-18: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신규자반	1월 19일(월)-2월 6일(금) (월-금) 14:00-18:00

(사)서울YWCA
제6회 정기총회



제104회(제6회 사단법인) 정기총회가 2026년 1월 29일(목)에 열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4:00
- 장소 대강당
- 문의 02-3705-6001, 6017

일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 신년예배 10:30	3 · 씩크머니 정기모임 (17일) 13:00
5	6 위원회 재정부 11:00	7	8	9	10 · 그린Y 정기모임(24일)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 Y-틴, 대학·청년YWCA 동아리 2025 활동 공유회 13:00
12 · 역대이사모임 11:00	13 이사회 10:00 · Y-틴 전국협의회(~14일)	14	15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30	16 위원회 강남Y 10:15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울력 정기모임 10:0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6:00	20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1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누리봄Y 14:00	22	23	24 · 소리모아 겨울 정기 공연 @서교스퀘어 17:30
26 위원회 봉천Y 11:00	27 위원회 인사위원회 합동 10:30 임원 12:00	28	29 (사)서울YWCA 제6회 정기총회 14: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2:00	30	31

일	화	수	목	금	토
2 · 역대이사모임 11:00	3 위원회 재정부 11:00	4	5	6	7 특별회원 정기총회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씩크머니 정기모임 (21일) 13:00
9	10 이사회 10:00	11 위원회 누리봄Y 14:00	12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 외부 회계감사 (13일) 10:00	13	14 · 그린Y 정기모임(28일)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16	17 설날	18	19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30	20 위원회 강남Y 10:15	21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울력 정기모임 10:00
23 위원회 봉천Y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평생체육팀 18:00	24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인사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임원 12:00	25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 강남 별걸 다하는 방학 '별다방'(~26일) 10:00	26	27	28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 11월

특별 후원

- 2025 큰장날 후원 김초자 박소현 변영희 이명순 이복희 이봉주 이지은 명예위원모임 재정위원회 (주)아모레퍼시픽 (주)지에스리테일 월드유니텍(주) 민홍숙 이경연
- 장학금 후원 유한김벌리(주) 장수자
- 창립예배 후원 최선미

재능 기부

- 최문희(전 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11·12월 회보 '환경에세이' 칼럼 기고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11·12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북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송태언 심영자 양진화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운선 이재림 이정희 이루은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까페 창진

일반 후원

고선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운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월요까페
주식회사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월 CMS 후원

김윤우 김윤익 강경록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민지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입 강운정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강혜진 강효미 강희경 정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욱 고희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광동윤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연미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혜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원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명희 김문휘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소희 김수언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자 김순혜 김시은 김시은
김 신 김애숙 김양선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혜 김예은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오경 김옥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미 김유애 김유진 김윤경 김윤전 김윤정
김윤종 김윤지 김윤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총 김은혜 김익동 김자희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운 김재현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장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환 김종숙 김중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린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충현 김태경 김태숙
김태연 김태연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하영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철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 마채은 마초희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용식 문자영 문종숙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난영 박노영 박대근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병주 박상수 박상영 박서호 박선미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외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숙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원 박지선 박 진 박진용 박진향 박진화
박찬인 박채원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정연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지우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빛나 서숙경 서승범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혜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영석
성영환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욱의
송윤주 송윤화 송은아 송이라 송재임 송종우 송창은
송태연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진실 신찬용 신창미 신홍섭
신현경 신현미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윤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영 양행욱 양현욱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염문철 염용희 염은애
오경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종민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애 왕정환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승효 유예나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복례 윤상은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지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성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곤 이승국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신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영준
 이영진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빈 이윤선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혜 이은희 이의곤 이인석
 이인성 이임수 이재건 이재경 이재길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숙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규 이진선 이창희
 이채진 이태림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나 이항재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이호섭 이효정 이희전 이희찬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성준 임승훈 임상수 임옥영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연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장선희 장성호 장세린 장수용 장영옥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현 장지현 장철승 장현주 장화선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규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오연 전운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옥 전현숙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대필 정동신
 정문옥 정미선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정윤희 정은주 정재현 정재훈 정정애 정중화
 정중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정자 정한얼 정해윤 정현서 정현승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영 조규원 조규원 조길수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민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희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한솔 조한준 조형운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조희수
 주다엘 주동일 주라엘 주명애 주영민 주하진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진가인 진부향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하나 채송화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문희 최민영 최 봄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최운영 최유정 최운서 최운형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인숙 최정현 최정호 최종대
 최준명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영 최혜원 탁순희 탁정미 하명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옥연
 한완영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운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서희 홍선미
 홍성옥 홍수연 홍운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왕연 황용하
 황지희 황현순 황홍숙
 Vanessa Shaffer (주)건축사사무소빅 (주)블룸컨버전스
 (주)지인에프엔씨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솔샘건축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아뜰리에 더 라엘
 아름답희한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조명팩토리
 주식회사아이통교육 주식회사아키웍스
 주식회사제이글로리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파티인테이블 향기나무

공동기도문 집필 감사합니다

2026년 공동기도문은
 채송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회원 소식

최한나 부회장 · 이경연 이사
 11월 17일(월) 시부상

서울YWCA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오카리나 엔젤단 회원 모집

2018년에 창단된 서울YWCA 오카리나 엔젤단은
 병원, 요양원,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음악으로 온기를 나누는
 연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더해줄 새로운 회원을 기다립니다.

- **연습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연습장소** 서울YWCA(중구 명동11길 20) 강의실
- **모집대상** 오카리나 중급
- **문의** 김재순 단장 010-3215-6408

회원이 낸 책

라일락, 그 향기

이명희 명예이사 지음
 한맥문화출판부 펴냄



그럼에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 마음은
 신의 선물이다

(중략)

하루는 길고
 일 년은 짧은
 시간의 비밀, 또한
 신의 섭리인가

미래가 있어
 삶은
 이어지는 그리움

살아 있음에
 바람도
 태양도
 포옹하리라

- 「시간의 비밀」 중에서 (24-25쪽)

국제PEN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계간문예작가상, 영락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시인이자 수필가, 소설가인 이명희 명예이사가 새 시집을 출간했다. 시를 ‘삶의 본질’이며 사랑을 찾아가는 길을 비추는 ‘기도’라고 말하는 그가 총 4부에 걸쳐 80편의 시를 엮어냈다. 이성교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이명희 시인은 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그의 시 세계는 세련된 지성과 신앙이 조화되어 맑고 따뜻하다”라고 평했다.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Y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서울 와이

아직도 친구가 아니신가요?

 인스타그램 @seoulywca_korea **팔로우 신청**
 유튜브 서울YWCA 검색 **구독 버튼**
 카카오톡 Q 검색란에 서울YWCA **채널 추가**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Thank you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 안내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서울Y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 **발급 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후원 내역이 있는 기부자
* 연 3만원 회비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2026년 1월 15일 이후 가능)
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나. 서울Y 홈페이지 '나의후원내역'
- **문의** 전화 02-3705-6008
문자 010-3447-6001

서울YWCA회관 대관 안내

서울Y는 강연,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주주총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관 시설을 운영합니다.

- 대강당**
- 좌석** 의자 200석, 의자·테이블 100석 (원형테이블은 개별 렌탈)
 - 기자재** 인터넷선, 마이크(유선·무선), 스크린(고정·이동형), 피아노, 현수막설치봉
 - 사용료** 2시간(기본) 40만원(VAT별도)부터
 - 문의** 02-3705-6093



2026년 제104회 사단법인 제6회 정기총회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4:00
장소 서울YWCA 대강당

(사)서울YWCA 제6회 정기총회가 2026년 1월 29일(목)에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2026년 1월

(사)서울YWCA 회장 **조연신**
사무총장 **최봄**

*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정회원 관련 문의 02-3705-6008

(사)서울YWCA 제6회 정기총회

총회 순서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4:00-15:30

개회예배

총회사

시상 - 감사패 · 봉사상 · 근속상 · 회원증모상 · 이연배봉사상

전회의록

2025년도 감사보고

안건심의

- 1호 의안 - 2025년도 결산보고
- 2호 의안 - 2025년도 사업보고
- 3호 의안 -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2026-2028 비전 및 비전사업 계획(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 4호 의안 - 공천위원 선출
- 5호 의안 - 정관 변경
- 6호 의안 - 총회 회의록 날인 이사선출

폐회예배

회가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 피부 탄력 피로도 12시간 후에도 3.5% 개선 상태 유지, 시험기간 : 2019.10.17~2019.10.18 / 시험대상 : 만 20~59세 여성 20명 / 시험기관 : 글로벌의학연구센터



이동숙

서울Y 7대 사무총장
해외선교사
1926-2016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한 이동숙 선생은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신학교에서 수학했다.
1948년 본회 간사로 본격적인 Y 활동을 시작한 선생은
회우부·국제친선부·대외부·사업부·건물부 등을 두루 맡아 일했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본회 총무(사무총장)로,
1964년부터 1965년 8월까지의 협동총무로 공헌했다.

해방 후 Y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60년대 이후 발전할 때까지 굵은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Y가 필요한 일이라면 말없이 책임진 그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일꾼'이었다고 본회 50년사는 전한다.

선생은 의사이자 목사인 남편 김성욱 선생과 함께
한국감리교로부터 1965년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첫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곳에서 교회, 학교, 진료소 등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헌신했다.

종신선교사로 임명됐으나
말레이시아 이민법령 제정에 따라
1974년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한국감리교는 2015년 말레이시아
선교 5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고 이동숙·김성욱 선교사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기렸다.



이동숙 선교사 가족 파송(1965년)
「한국감리교, 말레이시아 선교 50년 역사」 © CM리서치